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마서 12:15)

2015년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보듬주일

생명보듬주일

자료집

- 공동예배 설교문
- 청소년 설교
- 공동기도문
- 청소년 공과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이 땅의 상처입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Life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하나님 나라와 생명문화

조성돈 목사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본문 : 이사야서 11:1-9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자살이 큰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데, 무려 10년간 1위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세계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1위를 한다는 것은 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1위를 했고, 무려 10년 동안 그 1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약 1만5천 명 정도 됩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3년에도 우리 국민 1만 4427명이 자살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일(日)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약 40명 정도가 자살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열하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 것입니다. 요즘 육군 1개 사단이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육군 1.5개 사단 정도의 인원이 자살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2년이 되면 약 3개 사단이 자살로 죽은 것이죠. 요즘 초등학교 한 반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시나 지방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5개 반 정도의 인원이 자살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틀이 되면 초등학교 3개 반 정도의 인원이 자살로 죽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인들의 사망원인을 보면 1위는 암입니다.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암으로 가장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 뒤 따릅니다. 그리고 4위에 자살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뇨병이 나오고, 폐렴, 호흡기질환 등의 병명이 나온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9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4위에 있다는 것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당뇨병 환자보다 더 많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면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환자나 사고자보다도 많은 자살사망자나 생존자들을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인해 죽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뇨병 환자보다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다 그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그로 인해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즉 우리 가운데 자주 보게 되는 당뇨병 환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고자 하는 유혹과 괴로움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살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붙이지 못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터놓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은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보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방이나 방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에 1만 5천명이나, 또 하루에 40명이나 자살로 죽어 가는데 이 사회가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 메르스의 공포로 인해서 생업에도 지장을 받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병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초기에 그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86명 감염에 36명 사망이었습니다. 물론 수고해 주신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까 싶어서 온 사회는 조심했고, 서로 협조했습니다.

2009년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유행병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입니다. 그 때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각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심지어 교회에도 영향이 미쳐서 교회 출석이 크게 감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염자가 300만 명에 사망 2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도 우리는 큰 공포 가운데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병이 옮겨질까 하여 각 곳에 열을 재는 도구를 갖다놓고 사람들을 스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자가 260명이었던 것은 결국 보건당국과 온 국민이 협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쓰는 노력 정도를 자살예방에 쏟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노

력하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힘을 합쳐서 예방하고 치유한다면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보면 이 나라는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병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이 나라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치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잡아주면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텐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살의 유혹은 교인이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교인 가운데서도 자살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마음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변에 돌아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도움이라고 나누며 기도하면 먼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 하나님 나라는 바른 가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먼저 바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먼저 바른 가치에 기준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공의, 정직, 말씀, 성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 기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치가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공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들리는 이야기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횡포입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문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유명 아파트의 경비원이 분신하여 자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힘없는 이 경비원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직은 이미 우리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일 들리는 소문은 믿고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재료를 속이고, 과정을 속여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면 양심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음식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황을 사회학자들은 아노미라고 합니다. 규범을 떠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심

리학자들은 불안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면 아노미의 상황에서 불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계 1위를 10년이나 했으니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자살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살이 급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 IMF 사태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명이 채 못 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로 죽은 사람이 숫자를 나타내는 이 자살률이 10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이 1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전에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 18.4명으로 뛰어오릅니다. 그 후 잠시 주춤하다가 200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는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약 15년 사이에 자살률이 약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2위를 하는 나라가 일본이나 헝가리 정도인데 이들의 자살률은 약 20명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로는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잘 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IMF 사태 이후 우리는 경제중심의 사고에 빠져 들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죠. 돈이 사람을 평가하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고 그냥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과학자, 의사, 선생님, 대통령 등이 아니고 그냥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던 관계없으니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니 이것은 이 사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40대와 50대입니다. 특히 이 나이대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자살을 세 배나 많이 합니다. 즉 40대와 50대의 남자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이 나이대의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는 때입니다. 어쨌든 퇴직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은 가장으로 돈을 벌어서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자신을 퇴물로 여깁니다. 돈을 벌어서 주는 기계였는데 기계가 고장 난 것입니다. 결국 삶의 가치를 잃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가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메시야가 오실 때 이루어질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공의, 정직, 말씀과 성실인 줄 믿습니다.

2.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사자가 송아지와, 곰이 암소와, 찻먹이가 독사와 함께 지내며, 함께 뛰어 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이끌어 냅니다. 이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또는 훌륭한 화가의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이리와 표범, 사자와 곰이, 그리고 독사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 맹수들이 다른 짐승을 죽이고,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강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만인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사회를 '절벽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벽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 취업, 결혼, 주택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절벽과 같이 가로막아서 더는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팔꿈치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경쟁을 하며 팔꿈치로 서로를 밀쳐내고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회는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그 가운데 승리한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맹수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맹수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과 송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어린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맹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며,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친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생명이 해함을 받을 일도 그리고 생명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에 자살이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사회를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결국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런 것을 폭넓게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 사회에서는 죽음을 선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이 어렵게 되거나, 삶이 실패하고 절망하게 될 때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를 보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하고 물었더니 약 30%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 1년 동안 30% 정도가 자살을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습

니다. 그럼 지난 1년간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는가입니다. 그랬더니 네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참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가치관을 잡고 생각을 정립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지난 일 년 동안 30%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도 일 년에 네 번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에서 자살이 줄어들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자살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은연 중 그런 가치관을 심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그 죽음의 문화는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자살의 대물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이 죽음의 문화를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은 교회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이 사회와 나눈다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이끌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살을 만들어 내는 죽음의 문화 가운데서 생명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음의 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우리의 믿음이, 생명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충만해질 때 그곳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물이 바다 덮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화이며, 또 생명의 문화입니다. 이 생명의 문화가 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게 될 때에 상함과 해함도 없고, 자살도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혀를 차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워만 해서는 이 자살의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사회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행동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죽음의 영을 이겨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기반한 생명의 문화로 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의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김성은 목사
부산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본문 :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1. 살아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자체가 신비와 경이의 대상이다. 처음 병원에서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이 느껴졌다. 생명이라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음을 그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밀림의 성자로 잘 알려진 슈바이처 역시 생명의 경외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으로 일생을 바친 의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의사가 되기 전에 이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목사, 교수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지식인이었다. 그는 안락한 삶 대신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직접 기금을 마련하여 랑바레네에 병원을 열어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의료와 선교를 병행했던 인물이다. 그는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에 둘러 싸여있는, 살고자 하는 생명이다.” 즉 그는 자신과 다른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함을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2. 그러면 왜 생명이 소중한가?

첫째로 한 생명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에서 천하를 얻는 것은 능동태인데 반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 서로 상반

되는 '태'는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사람이 천하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힘쓰는 노력은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목숨은 그의 영향권아래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생명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심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한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로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오노 나나미의 소설 『로마인 이야기』 제1권의 부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언으로 되어 있다. 세우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다.

반면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건강이 그렇고, 인간이 좋아하는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생명은 어떤가?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말을 하고, 세계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로 어르신들의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를 든다.

셋째로 돈이나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모두 공짜로 주셨다. 공기와 물,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새소리 바람 소리 등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땅에서 값없이 누리는 것들이다.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억만금을 주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단연코 생명은 만들어 낼 수 없고 살 수 없다. 그러기에 생명은 소중하다.

3. 그렇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의 귀중함을 잘 보여주는 광고가 있다.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러나 그런 말들을 수천 수 만 번 말하는 것보다 당신은 소중하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니 그냥 살아갈 수 있다. 내일을 위해 지금 시작하자."

이 광고의 핵심은 막연히 생명이 소중하다는 캠페인만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당신이 소중하다고 당신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생명 존중의 출발점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여기서 자기 존중이란 내가 그 어떤 존재보다도 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다.

성경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특별히 생명을 존중한다는 말은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 존중이라 하여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남이 하기 어려운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존중하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요,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것, 학교생활에서 친구를 때리거나 놀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등이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 특히 한 마리의 동물이나 한 그루의 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생명존중의 한 모습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목숨을 거는 자가 생명의 참 가치를 아는 자이다.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이 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벼랑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헌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고 있니? 우리 마음!

(왕상 19:1-8, 살전 16-18)

조은하 교수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교육위원장, 목원대 교수

이야기 속으로 : 우리도 마음을 뒤집어 살펴볼까요? (Inside Out)

지난 여름 한 사춘기의 소녀 이야기가 연일 화제였다. 바로 영화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이다. 영화의 주인공 와일리는 열한 살이 되면서 사춘기에 들어섰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기쁨이가 감정컨트롤 본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감정들을 조절해가고 간다. 어린 시절부터 이름답고 즐거웠던 추억들은 기쁨의 감정들로 마을을 이루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사이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컨트롤본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기쁨이가 컨트롤본부에 돌아가기까지 라일리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가출까지도 시도하게 된다. 천신만고 끝에 기쁨이가 감정컨트롤본부에 들어가 감정들의 중심에 서게 됨으로서 라일리는 다시금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라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성장통을 겪기도 한다. 마음이 감기에 걸린 듯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 겪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뒤집어서 꺼내어 살펴볼까요?

거룩한 수다 Talk, Talk, Talk

1. 지금 나의 감정은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력이, 누가 나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가요?
2. 기쁨이가 감정컨트롤 중심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내오면서 가장 기뻐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엘리야도 마음이 우울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인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된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간이었다.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인이 먼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면서 바알에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송아지로 번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물을 부었다. 엘리야는 백성들과 바알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왕상 18:37)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올린 기도는 응답되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또한 가뭄으로 고생하던 사마리아 땅에 큰 비까지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를 겪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던 승리의 자리, 그러나 다시금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위기의 시간. 엘리야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기쁨과 슬픔, 자신감과 두려움, 소심함이 교차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간구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로뎀나무 아래서 두려움과 허탈함으로 그 마음을 잃고 우울해 하고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신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왕상19:5)”

기운을 차리고 일어난 엘리야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다. 천사는 다시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그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야를 행보하여 하나님의 산호렘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 혼자의 몸으로 사백의 오십인의 바알선지자를 물리치기도 하는 엘리야였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도 슬픔도 무기력함도 모두 있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 당당함과 소심함, 편안함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자리잡고 있듯이 엘리야도 그러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갈등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다. 천사를 보내시어 어루만져주신 것(touch)을 기억하라.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천사를 보내시어 어루만지신 하나님께 나아오라. 세미한 음성중에 엘리야를 만나 주셨듯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거룩한 수다 Talk, Talk, Talk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든 점들을 고백해 볼 수 있나요?
2. 내 주변에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왔던 것처럼 찾아가서 어루만져 준 것이 있나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나요?

우리들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감정은 뇌에서 관장한다. 인간의 뇌는 12~14세까지 자란다. 뇌가 자라는 과정에서 사춘기는 뇌가 골고루 발달하지 않는다. 편도체(amygdala)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버럭이·까칠이·소심이가 사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에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반성하는 기능이 이뤄진다. 그런데 사춘기때 편도체에 비해 전전두엽 피질은 늦게 성장한다. 사춘기의 뇌는 이렇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감정과 본능에 더 민감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좌절하게 된다. 쉽게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며 까칠하게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브레이크 없는 페라리’ 시기라고 이야기 한다. 사춘기의 뇌는 전전두엽 피질 뉴런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 성인 보통 20대 중반이 돼서야 기본적 연결망이 완성되는데 이것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연결망이 어떤 유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결정된다.

사춘기때 슬픔을 느끼는 감정도 더욱 미세하게 발전하며,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위험을 무릎쓰고

도전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뇌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는 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우리의 뇌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약물이나 알코올을 청소년기에는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힌다. 반면 적절한 운동은 기억의 핵심중추인 해마(hippocampus)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잘 자라고 있는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 그리고 적절한 운동,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마음의 숨결을 고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거룩한 수다 Talk, Talk, Talk

1.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외모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기쁨의 언어'를 세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2. 친구의 마음이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기쁨의 언어'로 친구를 축복해 주세요.

<참고>

인사이드아웃 예고편 <https://www.youtube.com/watch?v=1UieozYEuH8>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이 땅에 상처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빌2:1-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1-6번지 두선빌딩 3층

Tel : 070-8749-2114 Email : lifhop21@hanmail.net www.lifehope.or.kr